



오 경 록
남덕 싸니테크

□ 미국에서의 마렉병 대책

최근의 마렉병의 발생은 몇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아외의 바이러스 상황, 닭의 유전적 저항성, 백신의 접종이 관계되고 있다. 백신의 종류와 닭의 혈액형에 따라 발생 형태가 다르다.

육종회사에서는 혈액형을 이용하여 마렉병에 저항성이 있는 닭을 육종하고 있다. 마렉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닭에서만 보이는 바이러스의 종양을 일으키는 질병이다(최근 칠면조에서도 종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 2) 수평 감염만 된다(닭에서 닭으로 감염된다).
- 3) 초생추 특히 1주령 미만의 초생추는 감수성이 높다.
- 4) 1주간 정도후에 접종된 백신의 효력이 발휘된다.
- 5) 입추초기에 마렉 바이러스에 오염된 먼지에 노출되면 마렉병 발생 위험이 크다.
- 6) 종양 또는 신경증상은 대략 4주 이후에 발생한다.
- 7) 최근에는 강제 환우후에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마렉병은 닭에서 닭으로 또는 환경에서 닭으로 전염한다. 마렉병의 바이러스는 닭비듬이나 모낭 세포층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지와 같이 공기 전염한다.

마렉백신은 접종하며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어능력을 획득하려면 접종후 최소 7일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마렉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육추하는 것이다.

어느 농장에서도 마렉병 문제가 완전하게 없을 수는 없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마렉병은 쉽게 감염된다. 입추계사의 수세 소독을 철저하게 하였어도 초생추가 입추되면 커튼을 개방하거나 환기팬을 가동함에 따라 일령이 많은 닭이 있는 계사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더불어 마렉병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어 초생추는 감염된다.

계사에서 계사로의 감염을 반복함에 따라 마렉병의 피해는 크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계사마다 철저한 소독을 하여도 또한 백신으로서도 마렉병을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농장에서 14~15주령부터 마렉병이 발생하여 40% 이상의 도계사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농장에서는 마렉바이러스를 분리하여 보면 이 바이러스는 감염후 단시간에 체내에 침입하여 증식하고 면역 억제체가 매우 강한 것을 알았다. 또한 이러한 바이러스는 성계에서 성계로도 감염되는 것을 알았다. 강제 환우를 한 계군의 빈케이지에 대추를 입추하였더니 강제 환우계에서 마렉병 바이러스가 대추에 감염되어 40% 가까이 발생된 적도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마렉백신 인가의 역사가 서로 다르지만 1970~1980년대를 HVT 단독백신이 마렉병을 양호하게 방어하였다.

1980년대 이후는 HVT+SB₁의 2가 백신이 양호한 방어율을 보이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 2가의 백신에서는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10~15년간에 걸쳐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HVT, SB₁, 리스펜스(CVI 988)을 조합한 백신 평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최고로 유효한 것이 HVT+SB₁+리스펜스를 조합한 백신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백신비는 값이 싸야하므로 어떻게 하여도 필요시까지는 이러한 최선의 백신을 권장하지 않는다. 보다 우수한 백신이 개발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므로 현명하게 현재의 백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금후 뚜렷하게 강력한 방어 효과를 표시하는 백신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리스펜스를 추가한 3가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그것은 대개 3가의 백신대금 측면에서만 보아도 마렉병에 의한 피해율은 최저로도 0.5~

1.0%이상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렉병을 막기 위한 기본대책은 육추 육성사의 철저한 청소와 소독, 초생추를 일령이 많은 계군으로부터 오염된 먼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보로 병이나 기타 면역 억제성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농장 방역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사육관리의 기본을 지키고 백신을 잘 선택하는 것으로 마렉병에 대처하여야 한다.(NK. '97. 6)

□ 분노오염 도체는 완전폐기, 규칙을 제정

미국 농무성은 최근 식품의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계 검사 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에 의하면 분노에 의한 도체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방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현재의 도계 검사 제도에서는 분노에 의한 도체오염에 대해서는 그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오염이 제거된 후의 도체에 대해서는 도계장의 종업원에 의해서 청정상태가 검사되고 다음 식품 안전 검사국의 검사관에 의해 검사가 실시되고 청정상태가 인정되면 냉각실로 입고하게 된다.

이번의 새로운 규칙에 의하면 오염된 도체는 처리 과정에서 제외시켜 다른 도체로의 오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검사 체제에 추가하여 식품검사국의 검사관이 8시간 정도에 적어도 2회 이상 내장제거라인 다음에서 매회 10수의 검사 도계품을 검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는 검사 도계품의 수가 적은 것에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한다.(NK. '96. 5)